

석유화학 ‘대산 1호’ 조건부 승인 공정위, 5년간 내수가격 인상 제한

롯데·HD현대 생산시설 통합 추진
LDPE·EVA 점유율 합계 75% 넘어
수출가격 변동률 이하로 판매가 관리
전 품목 국내 수요자 공급 의무화
계열사 간 가격·원가정보 공유 금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추진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국내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물꼬를 뒀다. 다만, 경쟁당국은 과점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향후 5년간 제품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HD현대케미칼의 롯데대산 석화 흡수합병 및 롯데케미칼의 HD현대 케미칼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조 산비닐(EVA)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합으로 대산 산단 내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석유화학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되며,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50%씩 보유해 공동 지배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LDPE·EVA 시장의 경쟁 사업자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고 점유율 합계가 75%를 초과하는 등 과점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봤다. 특히 기존 시장가 대비 약 10%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던 신규 사업자(HD현대케미칼)의 경쟁 압력이 소실되면서 가격 인상이나 저수의 품목 생산 중단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로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 심사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게 하는 ‘구조적 조치’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시장 폐해를 막을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독 및 협조 효과가 있지만 결합을 금지할 만큼의 구조적 조치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행태적 조치를 촘촘히 설계해 5년간 부과하면 본 건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 우려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내수 LDPE·EVA 가격 변동률은 ‘수출가격 변동률’ 이하로 제한된다. 시정조치 기간인 5년은 사업재편 기간 약 3년과 시장 과점 시차, 글로벌 여건을 고려해 설정됐으며, 5년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아울러 결합 당사회사들이 생산 중인 모든 그레이드 제품을 국내 수요자 요청 시 지속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열

사 간 가격·원가·수량 등 경쟁 민감 정보 공유를 원천 금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전직했던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할 경우 1년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인적 장벽도 세웠다.

이번 심사는 법무부 차원의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신청 접수 이후 정식 법정 심사 기간 내 신속하게 처리됐다. 전 국장은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산업 구조 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중소 수요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 업체들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공정위와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접수된 ‘여수 1호’ 등 후속 석유화학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시장 과점 및 담합 우려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폐배터리 재사용·재제조 길 확대

기후부,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손질

폐배터리와 친환경차 모터, 풍력발전기 부품 등 ‘미래 폐자원’을 국내 핵심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의 합리화다. 정부는 다양한 폐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원료물질 인정 기준을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배터리에서 재생원료를 추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이 원료물질을 국내 제품 제조용으로 쓰는 경우로 명확히 제한해 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자원순환을 유도한다.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폐배터리의 별도 통계 관리용 분류코드도 신설된다. 재활용 용도 역시 단순 재활용에서 ‘재제조·재사용’까지 확장된다.

폐배터리 운송과 보관 안전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전기차 폐배터리에만 적용되던 운송·보관 기준이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농업·건설기계 및 전기저장설비 폐배터리까지 확대된다. 파손되거나 변형된 고위험 폐배터리의 경우 밀폐형 운송용기 사용과 절연·완충 조치를 의무화해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홍콩서 K-푸드 수출길 넓혔다

국제식품박람회서 2900만 弗 상당
복숭아 등 신선농산물 집중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출 업체들과 홍콩을 찾아 신선농산물을 비롯한 K-푸드를 선보였다. 특히, 최근 검역을 마친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홍보를 위해 행사장에 ‘K-프레시존’을 별도로 조성했다.

aT는 지난 13~15일 기간 홍콩에서 열린 ‘2026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2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홍콩무역발전국(HKTDC)이 매년 개최하는 이 박람회는 홍콩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 무역박람회다. 올해는 30여 개국에서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또 바이어 2만 명과 방문객 52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올해는 신선농산물 홍보에 비중을 크게 뒀다. K-프레시존을 별도로 구성해 포도·복숭아·토마토 등 다채로운 과채류를 선보였다.

최근 중국 본토와의 검역 협상이 타결된 한국산 단감은 수출통합조직을 주축으로 특별관을 운영했다. 국내 단감 수출 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덕분에 K-단감이 수출시장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중화권 바이어와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K-뷰티구역’에서는 마시는 스킨부스터·애플사이다 비니거·콜라겐 젤리 등 웰니스와 이너뷰티를 지향하는 제품들을 배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 컨테이너선 첫 북동항로 시범운항

해수부, 북극 신무역로 개척 본격화
부산 출발해 유럽 3개 항만 기항
운항비·연료소모 등 사업성 점검

컨테이너선의 ‘북동항로’ 시범운항이 국내 해운업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는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신(新)무역로 선점’이라는 국정과제의 한 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2일 관련 운항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팬스타라인닷컴의 2758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팬스타아크로호’가 투입된다. 이 선박은 부산을 출발해 북동항로를 거쳐 기착지인 영국 펠릭스토헤,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를 차례로 거친다. 이후 다시 북동항로를 통해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해수부는 지난 1월 출범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와 함께 올해 8~9월 중 출항을 목표로 북동항로 시범운항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운협회는 공모를 통해 팬스타라인닷컴을 시범운항 선사로 선정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선사 및 관계기관과 함께 선박과 화물 확보, 선원 구성, 보험 가입 및 비상대응체계 마련 등도 준비했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앞둔 팬스타아크로호

/뉴시스

다. 또 운항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행 및 국제사회 규범 준수를 위해 관련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마쳤다.

팬스타아크로호는 8월22일 부산항 신항에서 출항해 8월30일(현지시간) 북극해역에 진입한다. 이어 9월7일 전후로 북극해역을 통과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 유럽행을 기준으로 북극해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8일이다. 북극해 운항 거리는 약 6400km로 추산된다.

이후 9월9일 영국 펠릭스토헤항에 입항하고, 9월1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9월15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을 기항한 뒤 10월5일께 부산항신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전체 예상 운항기간은 총 45일이다.

선박에는 화학제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화물 약 737TEU와 공(空)컨테이너 100개 등 총 837TEU가 선적된다. 실제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북동항로의 기술·환경·상업적 활용가능성과 화주·물류기업의 이용 수요를 타진하게 된다.

팬스타아크로호에 승선하는 선장과 항해사는 모두 극지해역 운항을 위한 전문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극지운항 경력이 있는 아라온호(국내 유일 쇄빙연구선)의 현 항해사가 1등항해사로서 선장을 보좌한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북동항로의 운항거리와 소요기간, 연료소모량, 운항비용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북동항로 시범운항과 함께 북서항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최근 울산항만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극지운항 경험에 풍부한 네덜란드 해운기업과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극지항행 정보와 운항경험을 공유하고, 북서항로를 통해 운송할 수 있는 화물 수요를 공동으로 발굴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홍콩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한국관’을 찾은 홍콩 정부 관료들.

/aT

장애인 노동자 마음돌봄 안내서 발간

고용개발원, ‘내 마음건강 지키기’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책자가 발간됐다. 직장과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우울·분노 등 마음건강 문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0일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마음건강 안내서 ‘내 마음건강 지키기’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동자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고용개발원이 2023년 발간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를 보다 쉬운 글과 그림으로 개편했다.

특히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제작에 참여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안내서에는 불안과 우울, 분노, 트라우마, 중독 등 주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처 방법이 담겼다. 일상에서 스스로 마음건강을 돌보는 방법과 관련 전문기관 정보도 제공한다.

마음건강 문제별 정보형·사례형 동영상도 QR코드로 연결해 책자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글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도 영상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